

### 차자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 삼보이야기(1)-부처

불교에서 믿음을 이야기 할 때는 보통 삼보를 이야기 한다. 부처,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들의 집단인 승단이 그것이다. 그래서 불교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삼보에 귀의해야 한다. 삼보에 귀의 한다는 맹서를 한 다음에 출재가가 공히 수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를 받아 지니게 된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불자가 된다. 또한 아무리 오랫동안 사찰에 다녔더라도, 많은 법문을 듣고, 불교관련 서적 등을 수없이 읽었다 해도 수계하지 않은 사람은 불교도라 할 수는 없다.

부처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부처란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일반명사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석가모니부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이다. 그분이 남긴 말씀이나 전기를 통해 그와 같이 살고자 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대승불교가 흥기한 이후에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3신불사상이 등장하게 되며, 부처님의 개념도 변하게 된다.

불경에서는 삼보 중에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부처님에 대

에 행동도 수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행동이 자신의 인식 즉 아는 것과 일치했다는 의미이다. 다섯째는 행복해진 사람(樂)이다. 인간이 회귀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안락 즉 최상의 행복을 얻었다는 의미이다. 여섯째는 세상을 아는 자(世間解)다. 여기서 세상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가정될 수 있는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 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연기론에 입각하여 형이상학적인 답론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곱째는 가장 탁월한 사람(無上師)이다. 부처님은 모든 인간이 존속되는 최고의 존재자가 있다거나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도덕적 법칙이 있다거나 하는 두 개의 절대주의적 단정을 거부한다. 그는 단지 유능한 스승일 뿐이다. 여덟째는 숙련된 조련사(調御丈夫)다. 그는 인간들의 심리적 구조와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기초로 사람들을 잘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아홉째는 신과 인간들의 스승(天人師)이다. 부처님은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이 피땀 어린 정신적 도덕적 수련을 통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만한 스승이라는 의미이다.

### 각고의 수행 통해 깨달음 이룬 스승 언제나 지행합일...성인의 의미 함축

해 굽은 신념을 품노라. 그 세존은 응공, 정등각자,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여장부, 현인사, 불타, 세존이시라고"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을 성취한 자란 의미의 부처님 이외에 아홉 가지의 다른 호칭이 있는데 이것은 이들 호칭 속에 부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들 호칭의 의미를 살펴보면 부처님이란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는 준귀한 자(世尊)이다.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을 올바른 열망에 의지하여 도덕적인 완성의 정점에 도달한 사람을 말한다. 둘째는 존중과 공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應供)이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 여러 가지의 괴로움을 받지만 부처님은 도덕적 품성을 개발하여 그런 괴로움을 대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처님이 받는 공경과 예배는 초월적 존재자가 누리는 공경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는 완전하게 깨달은 자(정변지)이다. 여기서 완전한 깨달음이라 해서 절대적인 의미의 전지성(全知性)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는 지혜와 실천을 겸비한 자(明行足)이다. 이것은 인식과 동시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각고의 수련을 통해 최상의 지혜를 성취하였으며, 그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는 도덕적 완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동시에 부처님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교적인 용어로는 인간이며, 단지 아는 것과 실천이 언제나 합일되는 성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시대가 되면 불타관도 일대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즉 체상용(體相用)의 관점에서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으로 세분하여 부처님이 지나는 세상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을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묘법을 깨달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님인 보신불이다. 이 부처님은 근본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들의 소원에 따라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화신불이다. 역사상 출현했던 수많은 보살과 부처님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보신불과 화신불의 본체인 법신불이다. 법신불은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전지성(全知性)과 전능성(全能性)을 지니고 있다.



## 법 홍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회주)

나는 과연 무엇때문에 사는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어야 하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리 감각이 둔한 사람일지라도 이런 의문들이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조용한 밤중에 홀로 깨어있거나, 고독스런 일을 당했을 때나, 저승길이 얼마 남지 않은 황혼녘에서 이러한 의문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사실 누구나 자기 삶을 돌이켜 본다면 만족한다거나 자부심이 들기보다는, 아쉽고 허무하고 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제대로 알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삶과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한 나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일이 잘 풀리려면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인생의 석양길에 드는 60~70대가 되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길에서 자기의 근본문제를 생각한다면 늦은 겁니다. 지금 이시간, 자신을 바로 보세요.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속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니 늙고, 늙으니 병들고, 병이니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어야할 숙명을 가진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속에 빠져 바로 내일 일을 생각하려 들지 않지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깐 살아가는 존재며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는 '가아(假我)', 가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짜 나인가? 나라는 이 육신이 수백년 수천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죽어야할 숙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가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아(實我)는 무엇인가? 마음이고 낚이고 열이고 영혼이고 정신이고 본래면목이고 육신을 끌고가는 주인공입니다.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불성이고 자성이며 여래장자지요.

육신은 생멸이 있고, 나고 죽음이 있지만, 청정한 마음자리 법신은 생멸이 없습니다. 법신은 우주에 충만하고 불생불멸이요 상락아정(常樂我淨)입니다. <법화경>에 '제법중연생(諸法從緣生) 제법중연멸(諸法從緣滅)'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법이 인연을 좇아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험허스님도 "천겁을 흘러가도 예이 아니고(歷千劫而不去) 만세를 뛰어도 같이 이제(亘萬歲而長存)"라고 하였으니 육신은 생멸이 있되 마음은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 마음이 즐거우면



사진=고명배 기자

## 참선은 본래의 참나 찾는 '큰 일' 성불을 인생 최고의 목표 삼으세요

풍해 누구라도 그렇다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주의 작용은 일정한 이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법이 도이고 진리입니다. 우주에

오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의 산물이요, 마음가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법홍스님은 73세인 지금도 늘 책을 가까이 한다. 또, 만나는 누구에게나 책을 즐겨 법보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 간(肝)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릉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허무를 열어줍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반 정도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이법으로 다슬기 육질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더한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참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정아리에 넣고 원거 9기마니를 달은 뒤 원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서 문어문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나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원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2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선청:055)963-9583 · 상담문의:055)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약용,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 합니다. 수혈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며 손 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들과 번지만 앞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진류유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살바로 차떼며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유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 天一氣功

세계최초로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

• 단재강의한곳: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삼성종합화학(주), 한국중공업의 다수

**道家, 佛家에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 치료법 공개!**  
**누구나 5박 6일이면 氣 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천일기공 연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최후교정 운동을 하여 백병을 다스리는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은 100%가 골반, 척추의 변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국민의 99%가 골반과 척추가 변형되어 있으며,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의 골반, 척추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자의 경우 백가지의 치료법보다 먼저 골반, 척추를 바로 잡는 것이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천일기공 <정기10,000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만성 디스크(말초, 협착, 만곡, 측만) 요통, 좌골신경통, 목의통증, 만성두통, 관절통, 오심증, 건비통, 요실금, 생리통, 수족냉증, 심장병, 위장병, 간장병, 비만, 불면증, 고혈압, 안압증, 허리굴음, 안압피로, 발기불능 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주말 무료체험 교실 운영** [www.chgg.co.kr](http://www.chgg.co.kr)

-척추교정운동법, 오장육부 휴, 치유법, 통증해소법, 비만감량법등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선착순 20명만) T. 02-3436-3206

\* 책신청방법: 아래계좌로 후송료 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주시면 책 (370페이지)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999년: 013079-02-213631 주문서)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책신청 전화:1544-3246**  
홍보관 운영이실분, 즉시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특허 받은 의료용구 T. 02-3436-3207

**무료체험실 부산 525-4849, 제주 712-9001**

宗門第一書 **碧巖錄** 懸吐 法微一愚 譯解 泰華淨圓 平心寺의 정원스님이 毛筆로 手書한 **벽암록의 영인본**

역해본 원본

**碧巖錄**

用餘年而初學時 삼십여년전 처음 배울 때  
黑底字兮白底紙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더니  
譯解書刊將十載 역해(譯解)해 써서 간행한 지 거의 십년에  
有求索人付意味 구색(求索)하는 사람이 있음에 의미를 부여할까나.  
果師燒却戒學語 고사(果師)가 소각함은 말을 배움을 경계했음이나  
至今流通一場愁 지금토록 유통(流通)하니 한바탕 근심일런가  
法底何甯限碧巖 지을 것이 어찌 벽암록에 한할 뿐이라  
看他本師涅槃時 저 본사(本師)의 열반하실 때를 보이라.  
無所說已多話 실한 바가 없음이라 할도 이미 말이 많음이나  
倚天太阿不容擬 하늘에 기댄 태아검이 해아림을 용납하지 않느니라.

- 泰華淨圓 - **300절 한정판 / 정가 140,000원**

**도서출판 수미산 0213672-4276**

# 바로 극락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방법의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형상과 모양과 빛깔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고통과 번뇌를 여의어 내 마음이 즐거우면 바로 극락인 것이고, 내가 죄를 지어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지옥입니다. 부처님법의 요체는 바로 중생이 겪는 삶의 고통을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잡고 두고 기르는 공부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修心)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養心)이며,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用心)이고, 마음을 집으면 섭심(攝心)이라 합니다.

그러면 평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극락이고 마음을 잘 쓰는 것이냐.

첫째,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광명정대한 마음, 청정명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입제 선사께서도 '청정심이 부처'라 했어요. 청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은 부귀나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혜, 부모님 은혜, 스승의 은혜,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 한톨의 생산에도, 우리가 사는 집도, 자연의 수고와 수많은 사람이 관여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주의 깊게 살

펴보면 감사할 일은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확산될 때 이 세상은 밝아지고 평화로워 집니다.

세번째는 용맹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은 사스님이신 효봉스님은 38세때 금강산 신계사 보은암에 입산하여 8년동안 좌장불의와 오후복식으로 정진하셨습니다. 한번 앉으면 일어나는 것을 잊을 정도로 용맹정진하셨지요. 한번 목표를 세우면 그렇게 용맹심으로 밀어붙여야 성취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도 때도 없이 번뇌가 치솟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정신집중이 없으면 번뇌는 끊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참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왕인 철학이라는 것은 개념을 논

### 지켜야 할 마음가짐

### 늘 청풍명월 같은 마음 유지

### 부처·부모·스승 은혜에 감사

### 용맹심 일으며 목표향해 정진

리에 의해서 구성해 놓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선은 논리와는 적입니다. 선은 정신집중이고 공안에 대한 의심입니다. 강력한 정신집중을 하기 위해 참선을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정진집중하여야 마음을 깨끗이 인간존재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됩



◀빙장 보성스님 등 송광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한법홍스님(맨 오른쪽).

어느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송광사 화엄전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마 십여 년이 더 지났지 않나 싶다.

은사 스님이 발이 빠졌다. 성질이 좀 급하신 편인 스님이 급히 물바가지를 찾으며 건너편 수각으로 가시다가 그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가 과보를 받아서 그렇지." 누워서 간조를 받으시면서 나올 때까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 낯선 객이 와서 스님이 쓰는 물바가지들 세면장에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스님이 졸 안 졸은 마음을 가지고, "누가 자주 물바가지들 가져 가?" 하고는 이리저리 한참 찾으며 다니다가 그만 발이 뻐 것이기 때문이다.

인파인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셨다.

## 항상 '인과' 강조...누구에게나 책보시

나중에 알고 보니, 늦은 점심때에 인근 도시에서 대학생들 서너 명이 참배 와서 배가 출출해 하면 차에, 내가 내준 미수가루를 타서 먹고는 세면장 정리를 하다가 바가지 위치를 잘못 찾아 놓은 것이다.

당장 그릇이 없어서 여기저기 수각에 놓인 바가지들 모이다가 미수가루를 나눠먹은 파도였다. 그 뒤 학생들은 다 떠나고 오후 늦게 해질 무렵에 스님이 세면장의 바가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셨다. 그 뒤 세면장 밖에는 이런 글귀가 붙었다.

"세면장 밖으로 물바가지들 마음대로 가져가지 말 것."  
물론 스님이 쓰신 것이다.

니다. 참선을 하여 자성을 깨치면생사를 해탈하고 선악의 근본을 알고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알게 됩니다.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무명을 깨뜨리고 본래의 청정한 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이란 욕망과 아집으로 동쳐있는 삶을 근원적으로 비판, 탈각해서 진실하고 자비롭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식이나 분별작용, 자기주관으로 동쳐져 있어서 삼라만상을 하나의 생명근원으로 보는 전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파악되는 협소한 개인의 주관적인 분별에의 투영입니다. 참선은 열심히 하면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적속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고통평

이러입니다. 계속 사람들은 적자생존의 법칙하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도 깨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루 하루를 숨에 따라 보내지요. 생사에 매여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혹한 중생으로 머물러, 윤회의 고통을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법이 회교라는 사실을 알게되면 이상 부처가 되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혹한 중생이, 세속에 부대껴 살며 부처가 되는 길이 그리 쉽겠습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겨도 될까 말까 하지 않았어요?

이 좋은 법이 있는 줄 알게 된 이상 마음을 닦는 수행을 꾸준히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형상앞에 나아가 무엇을 얻게 해달라고 열심히 빈다고 그것이 참다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나 예불은 스스로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극한 마음이 우선이지요.

우주의 본질을 보고 내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만가지 다른 모습에서도 본 성품을 보고 결국 나의 생명이나 우주의 모든 중생이 근본은 같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법입니다.

나라는 인간이 무엇인지, 자기의 본래면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탈세가 되어 혼탁한 것은 자기 자신을 모른채 가어(假我)에 정신이 팔려 모두가 진실한 참나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매일 매일 새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상좌 지옥스님이 본 법홍 스님

"내가 과보를 받아서 그렇지." 스님 곁을 떠나서 지내는 일이 많은 나는 인과를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곤 한다.

잡하지는 못하지만 상좌의 한 자리를 지키는 입장에서 은사 스님의 깨끗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청복(淸福)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홍스님은 1931년 충북 괴산소으로 58년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59년 동화사에서 효봉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통도사 해인사 상원사 등 제법 선원에서 인가를 지냈고 74-77년 송광사 주지, 84년 송광사 조계종부 유나를 역임했다. 기억력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법홍스님은 70이 넘은 지금도 늘 책을 가까이 하고 또 만나는 누구에게나 책 보시하시는 일을 즐겨 하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새벽에 일어난 어김없이 대웅암주 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대웅전 등 각 전각을, 독경하면서 일일이 참배한다.



## 덕혜스님의 스님이야기

### 서암스님

지난 3월 30일, 문경 불암사 큰방에서 나는 만장을 쓰고 있었다. 밖에서는 영결식 준비하라, 문상객을 맞으라 스님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만장 쓰는 장면을 촬영하려는 기자들의 셔터소리가 울릴 때마다 나는 이 시대를 살다간 위대한 스승과의, 짧지도 길지도 않았던 기억들의 사진첩을 한 장씩 넘기고 있었다.

황금을 황금이라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진짜 금인줄 알 듯, 서암 큰스님을 모르는 불자들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실제 보다는 언론에 비친것 본인의 이미지 때문이었다. 3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야 불암사 부한 인연의 한 지락을 여기서 펼쳐 보이고 싶다.

84년 가을, 불암사행 안행복스는 지루하도록 오지 않았다. 3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야 불암사행 복스에 올라탄 나는 가을빛이 완연한 화양산 물결을 따라 불암사에 들어섰다.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모시고 참선을 시작한 지 5~6년이

조실스님께서는 준비경책의 인례를 자임하셨다. 경책은 혹독하여 조금이라도 조는 기색이 있으면 장군죽비로 무릎을 툭툭 치거나, 잠에 빠진 수좌에게는 힘차게 준비경책을 내어 우리의 정진에 힘을 보태 주셨다. 이때부터 나는, 망월사에서 참선의 맛을 본 뒤부터 불불기 시작한 불가사의한 선(禪)의 세계에 빠져 정진의 힘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서암 스님으로부터 힘입은 바 크다.

가끔 스님께서 붓답지를 쓰는 날에는 먹을 가는 시봉을 해드렸는데 시간을 절약하려고 급하게 먹을 갈라치면 "수좌가 무에 그리 급할게 있어? 마음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갈아." 하셨다.

서암 스님은 평소 무척 소탈하셨다. 법상에 오르셔도 알기 어려운 선문답이나 옛 조사를 흉내 내어 계승을 읊는 등의 행위를 하시지 않았다. 그저 간결히 공부하라고 일러주시길 뿐이었다.

또 전형적인 수행자의 모습으로 일관하셨다. 조실이나 주지나 하는 자리에서 올 수도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조실이란 자리도 부득이 후학들을 위해 맡으셨을 뿐이다. 그저 대중의 한 사람으로 행동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매양 겸소하기 이데데 없었다. 다른 스님들이 가운까지 가는 30리 길을 택시를 타도 스님은 걸어서 가운까지 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림·문병성

되는 때였다. 이전 제법 선방 장판때가 문었다는 나름의 자부심을 지닌 20대의 한창 젊은 열기가 들끓는 때였다. 먼저 조실 스님인 서암스님께 입법인사를 드리러 조실채로 갔다. "수좌는 어디서 왔나?" 분명 격의의 일대사 소식을 묻는 것임을 번번히 알면서도 대답을 못했다. 그런 나를 보시더니 빙긋 웃으시며 그만 내려가 정진이나 열심히 하라 하셨다.

겨울에도 스님의 방은 온기가 없었다. 조금만 불을 많이 지피어 방이 더우면 시자를 불러 주의를 주곤 하셨다. 한 기운이 냉랭한 방에 나무판을 깔고 그 위에 좌보를 놓은 채 참선을 하시곤 했다. 밤늦게 밖을 나가다 조실채를 보면 늘 불이 켜져 있어 정진중임을 알 수 있었다.

그해 겨울, 대중들은 결제 반월부터 용맹정진을 하기로 했다. 자지 않고 눕지 않으며 목욕과 삭발도 않은 채 조사의 관문을 뚫기 위하여 온몸을 내던졌는데 대중스님들의 정진열기에 감복하신

### 준비경책 자임...용맹정진 몰두케

### 생활겸약·전형적인 수행자 모습

김천까지 가지고 그런 다음 기차로 천곡 여기저기로 법문을 다니시거나 일을 보러 다녔다. 한번은 김홍사에서 예수재에 스님을 법사로 청했다. 내가 스님을 시봉하게 되었는데, 시골 안행복스를 몇 번씩이나 갈아 타며 가시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나는 종종 불암사로 스님을 찾아뵙거나 인연에 법문을 오실 때 찾아뵙거나 했다.

서암스님은 93년 조계종 종정에 오르셨다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중정을 사임하시고 조계종을 탈퇴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시더니 홀연히 산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나는 팔공산 제2석굴암에 머무시던 스님을 신도들과 찾아뵙게 되었는데 많이 수척해진 모습임에도 방에서 나오셔서 신도들을 위하여 법문을 들려주셨다. 그때 다른 신도 일행이 찾아오자 스님께서는 지친 노구를 마다 않으시고 다시 법문을 하시는 것이었다.

지인무기(至人無己) 성인무명(聖人無名)이라 했던가.

지극한 도에 이른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성인은 아예 이름마저도 초월한다.

서암 스님이야말로 이런 경지에서 유유자적하며 화광동진의 교화를 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서울 정법사 주지

## 당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다운 밸런스는 사람의 체질을 약화당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존한 당뇨 병자들에게 놀라움은 물론이고 다른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원천적 제거가 되며 불꽃 열매(당사) 기능은 확실한 시력 향상으로 인한 눈병을 개선 예방을 돕고(당사) 당뇨로 인해 고통받던 열악한 체질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밸런스를 조장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세균, 비만증, 부종, 체지방증
- 장년기 장애 등
- 간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성장애
- 체포를 없애고 치통 완화 해줌
- 정맥중상, 알, 담배피독
- 피부부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알콜중, 고혈압

**조원케미칼라이프 Co.**  
(주)한국제약(주)수시점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 화 080-598-9832

##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병약된 중생에게 영기가 왜 왔으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며, 또 제3자를 통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 중생들의 가정에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악연만 되풀이 되는 것이 영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고, 또한 영기의 원하는 바를 물어봐서 그 소원을 들어 천도해주면 영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누워주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기워놓림이나 영기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영기를 깨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년후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기가 세수하고 세웃을 갈아입는 모습
- 노릇돈을 쟁기는 모습
- 지옥의 문이 열리고 영기가 떠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 영기의 작용에 의해 고행하는 분 특별 상담  
무병·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혼령으로 잠 못 이루는 분,  
병마다 기워놓림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지상의 그 어떤 악령도 즉시 단 한번에 보하는 도량입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철학인, 무속인, 기공사, 의사, 사업가, 일반인  
■ 일시 : 인원 수시 접수

**021556-5590, 5542**

##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바지 : 150,000 동방·바지 : 180,000 두루막 : 150,000
2. 무명 수재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바지 : 180,000 동방·바지 : 220,000 두루막 : 180,000
3. 모시론 (올안해도 됨)	적삼·바지 : 150,000 동방·바지 : 180,000 두루막 : 150,000
4. 면 래우사	특징 - 세탁시 풀 안해도 됨 적삼·바지 : 13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5. 장삼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염비늘 : 200,000
6. 신도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카·바지(모직화재)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방 · 손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아열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행복점 방향 입구)

**3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표충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정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유중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인속의학자 권재우 용(경남 신성)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Genin 骨仁製藥(株)**